전북 제조업 · 비제조업 경기심리 동반 회복세

5월 제조업 기업심리지수 107.7… 원자재 부담은 여전

전북지역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제조업과 비제조업 전반에서 뚜렷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제조업 기업심리지수(CBSI)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생산과 수주, 자금사정 등 주요 지표 전반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전북지역 제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107.7로 전월보다 7.7포인트 상승했다. 6월 전망지수도 103.6으로 5.4포인트 오르며 경기 회복 기대감을 키웠다. 업황과 생산, 신규수주가 각각 1.9포인트씩 상승했고 자금사정과 제품재고도 개선 요인으로 작용했다.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역시 상승세를 이어갔다. 제조업 업황BSI는 78로 전달보다 10포인트 상승했으며, 6월 전망치도 73으로 8포인트 올랐다. 생산과 매출, 신규수주 실적지수도 각각 10포인트씩 상승해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전반적으로 살아나는 모습이다.

생산 관련 지표에서는 생산BSI가 93, 가동률BSI가 96을 기록하며 각각 10포인트와 15포인트 상승했다. 설비투자 실행BSI도 99로 상승해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경영 애로요인으로는 여전히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체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33.6%)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으며, 내수부진(20.9%)과 불확실한 경제상황(16.2%)이 뒤를 이었다. 수출부진과 인력난·인건비 상승에 대한 우려는 전월보다 확대됐다.

비제조업 역시 회복 흐름을 보였다. 5월 비제조업 CBSI는 89.1로 전월보다 6.8포인트 상승했고, 6월 전망지수도 소폭 상승했다. 업황과 매출, 채산성, 자금사정 등이 모두 개선되며 경기 기대감을 반영했다.

비제조업 업황BSI는 62로 6포인트 상승했고, 매출BSI와 채산성BSI도 각각 5포인트, 4포인트 올랐다. 자금사정BSI 역시 상승세를 보였다.

비제조업 경영애로 요인으로는 내수부진이 24.5%로 가장 높았고, 인력난·인건비 상승과 불확실한 경제상황이 뒤를 이었다. 특히 불확실한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는 전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 경제계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기업 심리가 개선되고 있지만, 원자재 가격 부담과 내수 위축 등 대내외 불확실성은 기업 경영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오상근 기자

미래차 인재 양성 위한 채용연계 교육 협력

전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전북교육청-캠틱종합기술원, 협약 체결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미래차 산업 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형 일자리 확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 운영하는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전북인자위)는 27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제4회 전북직업교육박람회' 개막식에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캠틱종합기술원과 함께 '전북형 채용연계 직무교육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산업 수요 기반 교육과 채용을 직접 연계해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정주형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미래차(친환경차) 분야 인재 양성과 채용 연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직업계고 학생 취업역량 강화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전북인자위와 캠틱종합기술원은 미래차 분야 인력양성과정을 공동 운영하며, 우선 20명 규모의 교육과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이 진행된 '2026년 제4회 전북직업교육박람회'는 '미래를 위한 탁월한 선택, 특성화고·마이스터고'를 주제로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열렸다.

행사에는 중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기업 관계자 등 4,100여 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박람회장에서는 직업계고 교육과정 홍보관과 학교 설명회, 정책 홍보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직업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오상근 기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지원 결실… 진안 버섯마루 판로 확대

버섯영양밥 · 가공식품 호응… 온라인 · 홈쇼핑 시장 진출 본격화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의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받은 지역 농생명 기업이 시장 진출 성과를 이어가며 주목받고 있다.

전북 진안군 부귀면에 위치한 버섯마루 유한회사는 국산 목이버섯을 기반으로 한 버섯 가공제품 개발과 판로 확대를 통해 지역 대표 농생명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버섯마루는 종균과 배지 생산부터 재배·가공·유통까지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하는 6차산업형 농생명 기업이다. 초기에는 생버섯과 건버섯 등 원물 판매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했으나, 소비자들이 보다 간편하게 버섯을 접할 수 있도록 가공식품 개발에 힘써왔다.

특히 최근 출시한 '버섯영양밥'은 소비자 시식 반응을 반영해 개발한 간편식 제품으로, 버섯의 수분과 향이 밥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공정을 개선해 풍미와 영양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건강식과 간편식을 동시에 선호하는 소비자층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바이오진흥원은 농생명 대표기업 육성사업과 전통식품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버섯마루의 제품 경쟁력 강화와 판로 확대를 지원했다. 박람회와 B2B 행사 참가 지원을 통해 바이어와 유통업체,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히며 제품 홍보와 신규 유통채널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이를 기반으로 버섯마루는 홈쇼핑과 쿠팡,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은 물론 오프라인 박람회까지 판매 채널을 다변화하고 있다. 대표 제품인 '버섯 그대로 5종 세트'는 홈쇼핑 판매에서 호응을 얻고 있으며, 버섯영양밥 역시 간편식 시장 성장세와 맞물려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전북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 현장컨설팅을 통해 마케팅과 제품개발, 기술개선, 신제품 기획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도 받고 있다. 이를 통해 버섯 기반 신제품과 반려동물 건강식품 등 신규 사업화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전북 진안군 부귀면에 위치한 버섯마루 유한회사는 국산 목이버섯을 기반으로 한 버섯 가공제품 개발과 판로 확대를 통해 지역 대표 농생명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김종임 대표는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소비자와 유통 관계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으면 성장에 한계가 있다"며 "바이오진흥원의 박람회와 판로개척 지원이 제품 홍보와 새로운 기회 창출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은미 원장은 "버섯마루는 지역 자원과 기술, 가족 경영의 진정성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는 전북 농생명 기업의 우수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의 우수 제품이 시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북디지털융합센터 · 산업단지공단, AX 매칭데이 개최

전북디지털융합센터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가 전북 산업단지 내 인공지능(AI) 기반 제조혁신 확산에 본격 나섰다.

전북테크노파크 부설기관인 전북디지털융합센터는 지난 27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본부 대강당에서 '전북권 산업단지 M.AX 카라반 수요·공급기업 매칭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군산 AX 실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조선·해양 모빌리티 산업의 고도화와 생산성 혁신, 지역 중소기업의 AI 도입 장벽 완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군산·익산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AI 솔루션 공급기업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활발한 기술 교류와 상담을 진행했다.

행사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 환영사를 시작으로 △인공지능 전환 도입 컨설팅 지원사업 소개 △산·학·연 종합프로그램 지원 안내 △기업별 AX 수준진단 △AI 공급기업 IR 발표 △수요·공급기업 1대1 매칭 상담회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핵심 프로그램인 1대1 매칭상담회에서는 공급기업별 독립 상담 테이블이 운영돼 참여 기업들의 실질적인 협업 논의가 이뤄졌다. 수요기업들은 관심 있는 AI 솔루션 공급기업과 10~20분간 심층 상담을 진행하며 현장 문제 해결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사업은 단순 행사에 그치지 않고 사후 지원체계까지 연계된다. 매칭 결과는 '2026년 인공지능 전환 도입 컨설팅 지원사업'과 연결돼 총 16개 기업에 기업당 최대 450만원 규모의 맞춤형 컨설팅이 지원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중기청,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전통시장 찾는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지역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방문의 날'을 운영한다.

전북중기청은 최근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사회 상생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정례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중기청 직원들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점심시간을 활용해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방문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한 식사와 장보기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북중기청은 이를 통해 직원 간 소통을 강화하는 동시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분위기를 확산하고 지역 소비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기관 내부에 전통시장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앞으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계 사업과 협력 방안도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지역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방문의 날'을 운영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 협력체계 구축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하정보 활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양 기관은 지난 26일 충북 음성에 위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 공유 및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굴착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로 파손 등 지하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굴착공사 구간 내 지하시설물 유무 정보 제공 △전문가 실무협의회 운영 △업무 효율화를 위한 기술 교류 및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LX공사는 지하공간통합지도와 양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연계·활용함으로써 굴착공사 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고, 지하시설물 파손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병섭 본부장은 "협약을 통해 굴착공사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고도화된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